

로버트 바노이, 신명기, 강의 6

© 2011, 로버트 바노이, 페리 필립스, 테드 힐데브란트

im Leben 의 역사적 의미

II.D. 구약 언약의 기원과 역사적 의미: 신명기의 현재 상황

1. 언약 형태의 Sitz im Leben: 그 존재의 역사적 의미

우리는 로마 숫자 II, 대문자 D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있는 언약의 기원과 그 역사적 의미: 신명기의 현재 상황.” 우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1. 언약 형태의 Sitz im Leben: 그 존재의 역사적 의미.” 그러나 그 1의 본질은 언약 형식의 본질과 형식의 기원에 관한 한 제의적이거나 역사적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 기원이다. 그것은 언약 형식과 관련하여 신명기를 둘러싼 현재 논의에서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나오나요? 형태의 기원에 있어서 형태의 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신명기의 날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태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 논의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제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것인가?

1. 폰 라트 (Von Rad)와 그의 제의적 기원 가설

우리가 논의에서 이미 알아차렸듯이, Gerard von Rad는 1938년에 이 형식의 파생을 제안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히타이트 조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약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명기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의 어떤 구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Hexateuch 책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구조가 제의와 그 패턴을 따르는 일부 주기적, 제의적 축하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제의 패턴은 신명기 자체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히타이트 조약 자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식별 가능한 구조가 있었고 그것은 제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54년 Mendenhall은 조약 자료로 시작했으며 지난 15~20년 동안 논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Von Rad는 이러한 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히타이트 조약 형식과 그가 원래 신명기에서 발견한 형식 사이에 매우 밀접한 유사점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구약신학 1권. 그의 구약신학은 196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조약 언약 논의의 초기 단계이지만 그는 13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대 근동 조약, 특히 만들어진 조약의 비교 기원전 14세기와 13세기에 히타이트인들이 구약성서의 구절을 통해 둘 사이의 공통점, 특히 형식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종주권 조약과 세부 사항의 설명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서의 특정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맺은 야훼의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구절과 구절 그룹에 대해 우리는 조약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식적 요소가 특징에 따라 다시 발생하지만 때로는 적합하게 자유롭게 적용되는 언약적 공식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얻은 조건.”

그런 다음 그는 그 스키마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약의 개요, 즉 언약 형식의 개요를 보았습니다. 그는 구약성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는 여러 곳을 언급합니다. 그는 “답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질문이 많더라도 두 종류의 자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태와 관련된 관계는 정복 이후 시대의 텍스트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악했지만 관련 구약성서 자료 중 일부의 연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매우 일찍, 아마도 판사 시절부터 이 조약 체계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초기에 이 형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에게 있어 이는 사사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모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사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신학에 관한 그의 책에서 형식에 대한 그의 논평의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는 내가 이미 언급한 신명기 주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1964년에 독일어로 나왔고, 1966년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지만 나는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21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이 최근에야 인식한 신명기에 사용된 한 가지 유형의 구성, 즉 언약에 사용된 형식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유력자들, 특히 히타이트족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봉신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의 패턴이 구약성서의 적지 않은 부분과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에서 그 패턴을 매우 분명하게 보고 그 패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시대에는 이 패턴이 오랫동안 문학적이고 설교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조금 논의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초기 근동의 가신들과 맺은 조약의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태의 기원과 이스라엘이 언제 그 형태를 채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23페이지에서 von Rad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신명기 가 배열된 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언약

갱신의 한 부분에서 제의적 축하에서만 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 언약 형식의 고전적인 패턴은 어떤 경우에도 신명기의 형태가 원래 뿌리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이미 폐기된 승배의 배경에서 절단된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이제 평신도를 위한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물론, 그것은 이 책의 기원이 되는 그의 레위 설교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설교의 형태로 던져졌으나 구조적 패턴은 원래 제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 제사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의 구조와 그 기원에 관한 한 1938년에 취했던 신명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는 조약의 형태가 신명기의 구조와 너무 유사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초기 이론을 포기하거나 형태의 기원을 모세 시대로 되돌리려는 결론을 내릴 의향이 없습니다.

비. 반대 이단 기원 가설

이제 나는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J. Thompson의 기사에 호소하겠습니다. 제의적 기원 가설이 형식 문제의 성격에 대해 적절하거나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제의적 기원 가설은 이 형태의 기원에 대해 적절하거나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형식이 최초로 채택된 이유와 시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왜 이 형식을 채택했으며 언제 채택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글쎄, von Rad는 그것에 대해 확신 하지 못합니다. 그는 판사까지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학생 질문. 이것이 사사 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형태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Vannoy: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료에서 여호수아 24장이나 신명기,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그 자체로 표현되는 자료를 취한다면 사사기보다 먼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자료가 실제로 나중에 성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이 제시하는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형식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그 형식으로 자료를 넣었으나 원본은 아니다.

씨. 톰슨과 필수 요소로서의 역사적 프롤로그

우리가 서론을 읽을 주석의 저자인 JA Thompson은 “이단 신조와 시내산 전통”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Reformed Theological Review*, 27권, 1968년, 52-64페이지. 매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개혁신학평론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von Rad의 견해를 논의하면서 Thompson은 “세속 조약의 역사적 프롤로그가 모든 조약의 기본 측면이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조약 구조의 역사적 프롤로그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톰슨은 이것이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세속 조약의 역사적 프롤로그가 모든 조약의 기본 측면이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강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가신이 조약을 수락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제시된 이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표현했다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프롤로그에 담긴 역사적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조약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그것은 확립될 관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프롤로그에서 다시 언급되는 사건의 의미에서 실제 역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가신의 조약 수락에 대한 강력한 논거가 되는 이전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개요를 나타냅니다. 위대한 왕은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다른 일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신이 그에게 부과될 의무를 받아들이는 좋은 이유입니다. 그는 과거에 왕의 자비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디. 폰 라드(Von Rad)의 제의적 접근 방식 에 대한 톰슨의 비판

Thompson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물론 Von Rad는 신명기와 출애굽기 19~24장을 논할 때 시내산 사건의 역사적 설명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역사적 서술은 매우 의심스러운 역사성을 지닌 제의적 전설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on Rad의 역사적 요약은 “의심스러운 역사성에 대한 컬트 전설”입니다. 작년의 구약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창조된 어떤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표현하는 제의적 전례 낭송입니다 . “그러므로 역사 프롤로그는 역사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의 전설이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라고 톰슨은 말합니다. 예배 전례가 근본적인 역사적 사건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즉, 조약 내용으로 돌아가면 대왕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감상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신 측에서 충성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 자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역사적 프롤로그가 실제 역사가 아니며 파트너 사이의 이전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프롤로그는 실제로 역사가 아닙니다. 응답? 그래서 제의적 파생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또는 갱신이 구약성서의 명백한 언약 형태와 관련하여 서술되는 야훼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언약 파트너의 선행적이고 역사적인 관계와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적 관계의 현실은 언약의 성립과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가 송배에서 갱신되거나 기념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것이 원래 공식적으로 확립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그 관계는 당신을 시내산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묘사된 시내산 사건은 언약의 형태가 시작되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역사적 서문이 조약에서처럼 기능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가리킨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일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확립될 관계에 대한 선행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와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그 이전의

역사, 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형. 역사적인 Sitz im Leben과 출애굽기 19-24장 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구약성서 언약 형식의 어떤 것이 그 존재의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형태의 본질과 기원은 제의적인가, 아니면 역사적인가? 나는 조약 형식의 비유를 통해 특히 그것이 역사적 프롤로그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형식의 역사적 기원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프롤로그는 실제 역사를 낭송하는 것이지, 이 특별한 형식에 담긴 관계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종의 전설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학생 질문: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언약 조약 관계 형태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까 ?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들어간 때입니까?

Vannoy: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님 자신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당시에 알려졌던 이 법적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패턴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파생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정치적 영역의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정치적 영역의 패턴으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구조화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국.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한 일이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가 있고 너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느니라.” 이에 대한 승인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기 전에 맺었을지도 모르는 히타이트 조약의 언약을 복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세한 종류의 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요소가 포함되어 구조화된 관계입니다.

2. 신명기 연대에 대한 조약 형식의 변화와 그것이 갖는 의미

시트의 2번, “조약 형식의 발전과 신명기 연대에 대한 그 의미.” 나는 이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클라인은 대왕 조약(The Treaty of the Great King) 페이지 28에서 신명기는 전체 구조에서 모세 시대의 종주권 조약의 고전적인 법적 형식을 보여주는 언약 갱신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전적인 법적 형식을 강조하는 걸까요? 클라인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그가 "종주권 조약의 기록 형식에서 식별 가능한 진화"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요점은 형태의 변화와 형태의 진화를 통해 신명기는 모세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히타이트 조약의 고전적인 형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고전적인 패턴은 원래의 패턴에서 벗어나 수정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신명기는 후기 조약 형식, 즉 아시리아 조약이나 세피레 조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헷 시대의 고전적인 형식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식별 가능한 진화를 통해 그는 "신명기는 조약 형식의 진화에 있어서 고전적인 단계와 일치한다"고 말하며, 이는 신명기를 모세 시대의 틀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현재 논의의 또 다른 요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14세기와 13세기의 히타이트 조약은 이후의 조약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고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형식은 시리아 북부의 세피레 에서 체결된 8세기 아람어 조약 이나 아시리아의 에사르하돈의 7세기 조약과 일치합니까? 이는 클라인의 주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며,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후의 조약을 가지고 있고, 7세기의 앗시리아 조약인 이후의 조약이 히타이트 조약과 형태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왜 신명기는 기원전 621년 날짜를 입증하는 7세기의 앗시리아 조약을 기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W

ellhausen이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에사르하돈과 세피레 의 봉신 조약을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비교하고 신명기 연대에 대한 의미

너무 작습니다. “에사르하돈과 세피레 의 가신 조약을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비교하여 신명기 날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을 살펴보면 , 초기 히타이트 조약과 거의 동일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약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a, b, c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 이다. 아시리아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사이의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대조는 히타이트 조약 도식의 두 번째 부분이 아시리아 조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역사적 프롤로그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적 프롤로그는 히타이트 조약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대왕이 규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정당화한 것은 이전의 자비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약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는
가신이 위대한 왕에 대해 갖는 의무를 정당화합니다.

그 역사적 프롤로그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히타이트 조약의 서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즉, 그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 조약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히타이트 조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메모를 추가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모든 조약에서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입니다. 나는 그것을 논의한 몇몇 독일 작품을 당신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Dennis J.
McCarthy는 그의 저서인 조약과 언약(당신의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음)에서
그의 책의 여러 곳에서 그것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히타이트 조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몇몇 히타이트 조약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 프롤로그는 조약
형식의 필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매카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빠진 내용이 있는
텍스트를 활성화하고 특정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활성화합니다. 매우 복잡한
질문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Herbert Huffman
은 McCarthy의 해당 진술에 반대합니다. 허프만은 그것들이 모두 역사적

프롤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나의 분석을 지지합니다 .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질문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프롤로그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조약에 포함된 조약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그 구조에 대왕에 대한 가신의 충성 의무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다음 요소입니다. 대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의무에 대한 발음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Esarhaddon 조약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기 때문에 Esarhaddon 조약에서 볼 수 있는 차갑고 거친 어조가 발생합니다. 그 조약의 표현은 무자비한 아시리아가 주변 국가에 권력을 강요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충성심과 감사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받을 만한 가신을 대신하여 자비로운 아시리아인의 행동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위협과 저주로 보장되는 의무에 대한 무뚝뚝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정신입니다.

이 아시리아 조약은 히타이트 조약보다 그 수가 적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양의 문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발견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많은 질문에 대해 상당히 다른 조명과 각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채택한 어떤 종류의 이론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기껏해야 단편적이다. 단편적인 증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원이 되는 모세 시대에 히타이트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는 결론적으로 역사적 프롤로그가 형식의 중요한 차이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조약 사이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형태와 관련된 형태의 차이와 정신의 차이를 얻습니다. 따라서 히타이트 조약의 종주국과 가신 사이에는 아시리아 조약의 관계와 상당히 다른 관계 품질이 있습니다.

2. 역사적 프롤로그 바로 뒤에 나오는 기본 의무, 즉 충성 의무의 부재

두 번째 요점: 역사적 프롤로그 바로 뒤에 나오는 기본 의무, 즉 충성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는 아시리아 조약은 이를 명시하지 않지만, 이는 무엇보다 조약 파트너 간의 관계 정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히타이트 조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대왕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행위에 대해 신하들은 충성의 맹세를 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히타이트 조약의 요소 대신에 아시리아 조약에는 구조의 상당히 다른 위치에 충성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첫 번째 섹션 이후입니다. 충성의 맹세는 맥락이 신뢰와 충성보다는 두려움의 맥락이 되도록 취해집니다. 관계의 질은 상당히 다릅니다.

3. 축복의 부재

셋째, 축복의 부재 역시 아시리아 조약의 취지에 부합하며 또 다른 구조적 차이이다. 조약 규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어떤 축복도 열거되지 않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결론은 이러한 관찰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 세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클라인이 주장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리아 조약은 초기 히타이트 조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 클라인의 입장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이제 Kline만이 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클라인만의 생각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복음주의 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Mendenhall 자신도 동의하고 Albright도 동의하며 John Bright는 그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시리아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Mendenhall은 1954년 자신의 논문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에서 “이 언약 유형은 입증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더욱 중요합니다.

기원전 2천년 후반 대제국의 몰락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제국, 특히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이 가신을 묶는 계약의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멘덴홀입니다. “아시리아 조약은 다릅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 역사적 프롤로그가 누락되어 있으며 오직 아시리아 신들만이 증인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 패턴도 불규칙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올브라이트는 자신의 책 석기 시대에서 기독교로(Stone Age to Christian)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8세기 이후의 6개의 아시리아와 아람 민족 조약의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고 Mendenhall의 말에 동의합니다.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그의 『이스라엘 역사(History of Israel)』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Kline은 좋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클라인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않지만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소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조약에서 예상되는 것과 유사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점만으로는 “조약의 형식은 히타이트 제국에 의해 이미 표준화되었고, 에사르하돈의 속국 조약은 신아시리아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Kline, Mendenhall, Albright 및 Bright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진화가 있습니다. 두 조약 사이에는 아주 다른 구조, 아주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2. 세 피레 아람 조약

좋습니다. 2. “ 세파이어 조약”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우리는 아시리아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세피레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기원전 8세기의 아시리아 조약보다 약 100년 앞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히타이트보다 아시리아 조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세피레 는 8세기에, 아시리아는 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 에사르하돈 조약 또는 아시리아 조약과의 유사점

작다. “에사르하돈 조약이나 아시리아 조약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주목하게 될 것은 히타이트 조약과 세파이레 의 유사점입니다.

그들은 두 조약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리아 조약과의 유사점: 현재 이용 가능한 세피레(Sefire) 의 아람어 조약에서는 역사적 프롤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 조약은 처음부터 단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조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존하는 것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세피레 의 조약은 히타이트 조약보다 에사르하돈 조약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피레(Sefire)는 다른 작은 세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조항은 명백히 일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더 강력한 파트너를 향한 가신의 행동을 규제하지만 상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신에 대한 더 큰 권력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대조를 통해 두 조약 파트너의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파트너는 가신에 대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는 히타이트 조약의 강력한 요소입니다. 우두머리 파트너는 가신에게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는 가신이 자신의 종주국에 계속 충성하면 가신의 적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모자이크 자료와의 유사성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세피레 조약 과 아시리아 조약 모두 가신에 대한 그러한 보호 조항이 부족합니다. 아시리아 조약이나 세피레 조약 에는 보호 조항이 없습니다 .

몇 가지 다른 요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남겨두고 아시리아 조약과 세피레 조약의 유사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 세피레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의 유사점은 아람어 조약의 특정 특징이 히타이트 조약과 더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약의 증인으로 요청된 신들을 선택할 때, 아람 조약은 종주국과 가신의 신들이 조약의 증인임을 인용합니다.

Ally Faber의 전사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

12